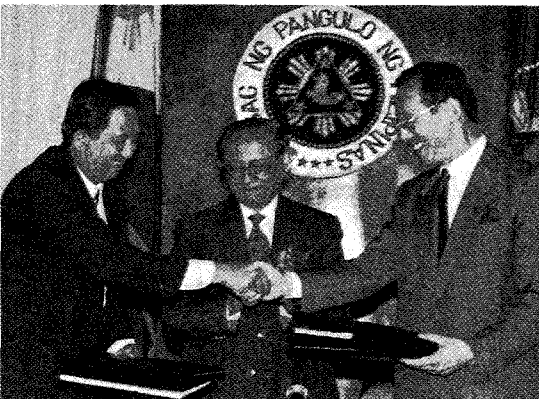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필리핀 말라야발전소 운영권 계약  
15년간 7,325억원 매출 전망

한국전력공사는 필리핀의 최대 규모발전소인 말라야 화력발전소를 향후 15년간 운영하는 사업권 계약을 5월 17일 체결했다.

李宗勳사장은 이날 필리핀의 대통령궁인 말라카낭궁에서 피델 라모스 대통령이 입회한 가운데 필리핀 전력공사 벨가도사장과 65만kW급 말라야 화력발전소 성능복구 및 운영사업권 인수계약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李宗勳사장은 “오늘을 계기로 양국간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계약을 체결한 말라야 화력발전소 성능복구 및 운영사업은 기존 발전소의 복구 및 운영권 인수사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서, 앞으로 약 1,300억원을 투자해 3년에 걸쳐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발전소를 직접 운영해 전기요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의 발전용 연료는 무상으로 공급받으며 연간 70%의 이용률을 보장받아 연간 574억원의 매출수입을 올림으로서 15년간의 사업기간 중 총 매출액은 7,3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말라야발전소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주요 전력공급원으로 30만kW의 1호기와 35

만kW의 2호기가 각각 75년과 79년에 준공된 중유발전소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지난 1월 10일 에미타발전소 재가동 운영사업에 이어 연속 2차례 필리핀 발전사업을 수주하게 됨으로써 향후 동남아 전력사업 진출에 더욱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말聯 디젤발전소 공급계약 체결  
6천만달러 규모 일괄도급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는 말레이시아의 세루동전력 주식회사와 6천만달러 규모의 36MW 디젤발전소에 대한 공급계약을 일괄도급 방식으로 체결했다.

현대가 지난 8개월간 유럽 일본등 외국업체와의 치열한 경쟁끝에 수주한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사바주 타와우지역에 건설될 민간 사설발전소 공사이다.

현대중공업은 엔진발전기등 주요 기자재의 제작을,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와 시공을 맡게 되며 시운전을 거쳐 내년말까지 발주처에 인도될 예정이다.

지난해 9천만달러에 수주한 멜라와 50MW 디젤발전소 공사에 이어 두번째로 말레이시아에 디젤발전소를 공급하게 될 현대는 최근 수주한 이스라엘의 60MW 디젤발전소 공사를 비롯해 중국 서남아시아 중동 및 아프리카등지에서 디젤발전 플랜트공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소

초고압 송변전설비 금구류 개발  
765kV급 완전 국산화

한국전기연구소 선로성능연구팀은 차기초고압 송변전설비에 사용되는 7백65kV급 금구류를 국내에서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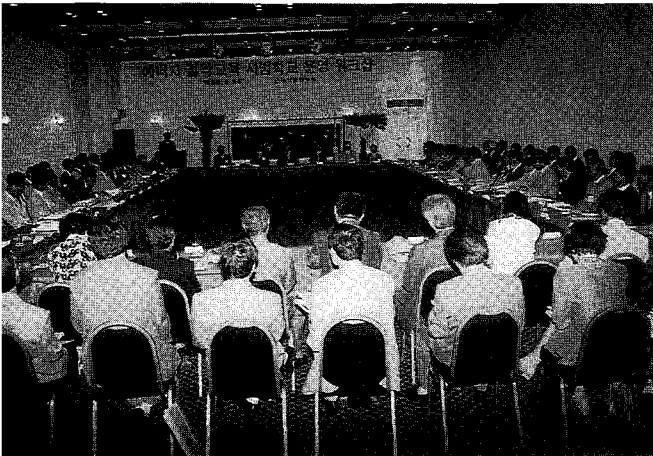
지난 92년부터 한전, 세명전기, 일진전기, 건화상사등이 공동으로 연구에 나서 지난해 애자등의 금구류 시제품을 만들었고, 올해에는 가공지선 및 변전소용 금구류를 제작해 특성시험을 끝냈다.

이 연구팀은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7백65kV급 송전선로용 조립식 접퍼장치와 스페이스 댐퍼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시설을 만들어 관련연구에 나섰다.

한편 한국전기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7백65kV급 전력계통에 필요한 금구류를 완전 국산화함으로써 외화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95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운영 워크샵  
21세기 「절약마인드」확립 계기**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5월 26일 대전 롯데호텔 회의실에서 서울 경수국민학교(교장 류갑현)등 금년도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시범학교 교장·연구주임과 통상산업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자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시범학교 운영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 93년 대전 목동국민학교등 3개교로 운영됐던 에너지절약 시범학교를 금년에는 25개교로 확대한데 따른 에너지절약교육의 방법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한 상호인식을 공유, 시범학교의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샵에서 이기성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선학교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은 다가오는 21세기 에너지 환경복지국가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에게 에너지절약의 마인드(Mind)와 그 실천방법을 가르치는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말하고,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을 시간적·공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것이라고 에너지절약교육의 장기발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시범학교 운영사례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작, 배포한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용 부교재 개발에 참여한 한국교육개발원 최돈형 박사의 에너지절약 조기교육의 이론적 방법론 및 부교재의 내용에 대한 발표를 듣고 에너지절약 교육의 방법과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워크샵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대전 EXPO 과학공원내 「에너지관」을 방문, 에너지절약에 관한 현장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대한광업진흥공사**

**베트남 흥케지역 자원협력 기초조사  
광물자원 장기적 안정 확보**

대한광업진흥공사는 베트남 지질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베트남 흥케지역에 대한 95년도 1차 자원협력 기초조사를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5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풍부한 자원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베트남의 광물부존 유망지역에 대한 광물탐사를 실시함으로써 베트남의 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상호기술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광물자원의 장기 안정적인 확보기간 구축 및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국제협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단계 광역 지질조사 결과 금과 주석의 유망 광화대 발단 지역으로 예상되는 40km<sup>2</sup> 지역에 대하여 정밀지질 조사, 광상조사 및 지화학 탐사등을 실시하고 암석 및 광석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정밀지질도 및 지화학 이상도를 작성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올해반기의 2차 탐사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흥케지역은 베트남 중부 하틴주 서방 라오스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인근에 빈시가 위치하고 있어 향후 개발시 인프라 여건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광업진흥공사는 「한·베트남 자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베트남 지질청과 「흥케지역 공동 지질조사 및 광물탐사사업」에 합의했다.

(주) 유 공

러시아연구소와 기술협력 추진  
R & D 세계화 추구 가속화

(주)유공은 세계적인 환경기술을 지닌 러시아의 토프체브(Topchiev)연구소, INBIO社, 모스크바대학, 쿠르나코브(Kurnakov)연구소 등과 기술도입, 공동 기술 개발 및 연구원 교류등을 포함하는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공은 러시아측이 환경기술 기초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이 기술을 실전에 응용해 본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반면, 유공은 대형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경험에 입각한 응용 연구에 뛰어나 상호 보완관계로 기술협력의 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난 93년, 94년 두차례에 걸쳐 유공은 러시아 연구소를 방문, 기술수준을 검증하는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토프체브연구소 소장 INBIO社 포포브(POPOV)사장의 유공 방문시 대덕 기술원과 울산연구소에서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한편, 지난 4월 중순에는 모스크바대학의 카사히킨(Kasahikin)박사와 쿠르나코브연구소의 셰로코브(Shchelocov)박사가 유공을 방문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유공은 이들 연구소로부터 미생물 제거기술, 중합폐수처리시설의 약취 제거기술 및 난분해성 폐수처리기술 등을 도입, 응용기술로 소화하여 상업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며 러시아측과의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 상반기중 상호 기술협력 기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초 중국 최대 석유화학회사인 중국 석유화학공사(SINOPEC)와 공동기술 개발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러시아 유수의 연구소와도 기술협력을 추진하는등 유공은 R&D(연구개발)세계화 추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아엔지니어링(주)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

동아엔지니어링(주)는 최근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LRQA(로이드 품질시스템인증기관:지사장 千政基)로 부터 발전소, 가스·유류저장 및 배관망 설비, 하수처리 설비, 토목, 건축 및 통신분야 설비에 대한 사업관리, 설계, 엔지니어링, 구매 지원, 공사감리 활동등 일관된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대해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동아엔지니어링은 지난 94년 2월부터 인증 준비 작업에 착수, 95년 3월 13일부터 4일간 LRQA의 ISO 9001 인증 본심사를 거쳐 13개월만에 인증서를 획득하게 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수평식 가정용 가스보일러 개발  
年 300억 절약효과 기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는 지난 92년부터 2억 7천 만원을 들여 최근 가스버너와 열교환기를 수평으

로 설계하여 열효율을 높인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가스보일러는 예혼합연소방식인 세계 최소형인 1만 6천~2만Kcal/h의 고효율 저공해 제품이다.

이 보일러는 2만Kcal급 용량의 크기가 33cm×30cm×23cm로 기존제품에 비해 크기를 30%정도 줄여 설치면적을 줄이고, 열효율을 7~9% 높여 일반 가정용 가스보일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3백억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불이 불기전에 연료와 공기를 섞는 예혼합연소방식을 채택, 2차로 나뉘어 공기를 흡입하는 기존의 세미분젠식 가스버너에 비해 질소와 이산화탄소등 공해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개발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보일러연구팀이 과학기술처의 지원을 받아 3년간의 연구끝에 이뤄졌으며, 또한 朴寅錫 박사팀은 이 보일러와 관련된 특허 6건을 출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을 모색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국가스공사

### 카타르産 LNG도입 추진 99년부터 25년간 年240만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카타르 정부와의 LNG(액화천연가스)도입과 관련한 협상에서 도입물량과 기간에 관한 조건을 타결짓고 도입가격을 놓고 마무리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는 카타르 정부측에 카타르産 LNG를 오는 99년부터 25년간 해마다 2백40만톤씩 도입할 것을 약속하고 가격협상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카타르産 LNG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됨에 따라 올하반기부터 내년 사이에 최소한 5척(11억달러상당)의 LNG운반선 발주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따라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등 LNG선 생산능력을 갖춘 조선사들간의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올상반기중 인도네시아産

LNG 1백만톤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중에는 LNG 5호선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카타르産을 추가 도입할 경우 이를 수송하기 위해 LNG선 4척의 추가 발주가 불가피해 LNG선의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기공(주)

### 사용후핵연료 특수 취급장비 개발 순수 우리기술 「물쇠1호」

한전기공(주)은 사용후핵연료 특수 취급장비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물쇠 1호”라 명명했다.

한전기공 고리1사업소는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의 소내 저장능력이 포화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1차로 1992년에 156다발을 고리 3호기로 이동 저장시킨데 이어, 1994년부터 2차로 1차와 동일한 규모로 소내 수송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핵연료다발의 인양에는 완벽성이 요구되는데, 상단고정체에만 힘을 가해 인양하는 기존의 외국사 취급장비는 상단고정체의 분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전기공은 핵연료다발의 상단고정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인양 및 수송작업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의 집적된 실무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특수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 장비는 기존의 방식에 추가하여, 가이드썸볼 튜브 내부의 확장에 의한 2차적 추가 체결기능을 동시에 보유토록 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취급시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 제작된 특수 장비이다.

이처럼 기존의 체결방법에 덧붙여 상단고정체가 분리되어도 연료체가 낙하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체결장치를 동시에 가진 장비가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됨으로써 핵연료 취급의 안전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수입대체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전기공은 “물쇠1호”의 국내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아울러 국제특허의 출원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중공업(주)

한국표준형 울진3호기 원자로 설치  
전제조공정 자체기술 제작



한국중공업은 1백만kW급 가압경수로 방식의 한국 표준형 원자로인 「울진3호기」를 제작 완료했다.

한국중공업은 이번 한국표준형 원자로가 설계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제조공정을 자체기술로 제작한 것으로 對北 경수로지원에 제공될 원자로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국표준형 원자로로는 미국 ABB-GE社의 「시스템 80」을 한중이 영광 3·4호기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실정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이 원자로는 길이 12m, 폭 7m, 무게 4백33톤의 제원을 갖고 있으며 외벽은 탄소강으로 구성하고 스테인리스를 입혔다.

한국중공업은 지난 91년 3월 이번 가압경수로 방식의 원자로 제작에 착수, 총 4천만달러를 투입해 48개월만에 완성했다.

「울진 3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상 최초로 한국중공업등 국내업체들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중공업은 원자로를 비롯하여 터빈발전기등 주요 발전설비를 제작·공급하고 있다.

울진 3호기는 올해 4월 원자로 설치를 완료하고

전원가압시험, 상온수압시험, 고온기능시험 등을 거쳐 98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ISO 환경인증 시범대상 선정  
대기업 공공서비스분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ISO환경인증 시범실시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ISO 14000(국제환경규격)시범인증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상태를 점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업진흥청이 내년부터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ISO 14000체제에 대비키 위해 국내 시범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예비심사 대상은 국내 기업의 54개 공장으로서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가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화학 8개, 일반화학 6개, 기계 및 부품 6개, 정유 4개, 섬유 및 염색 3개 등이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기업 공공서비스 분야 환경인증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예비심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경영 상황진단을 실시한뒤 환경관리체계가 양호한 기업은 「환경경영지도 대상기업」으로 선발, 집중적인 지도를 한뒤 최종정밀 심사를 거쳐 올해말쯤 「환경경영 시범기업」으로 인증될 계획이다.

또한 환경경영 시범기업으로 선정되면 내년의 공식인증을 간단한 절차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한국석유개발공사

베트남 11-2광구 가스발견  
2년간 4개탐사정 추가시추

한국석유개발공사는 베트남 봉타우항 남동방 280km해상에 위치한 베트남 11-2광구의 쌍룡구조(Rong Doi)에서 가스를 발견하였다.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 구조에 대하여 94년 11월 1일부터 5개월동안 탐사시추를 실시하였으며, 산출시험(DST)결과, 3,670~3,788m의 3개구간에서 하루 가스 4천3백만 입방피트, 컨덴세이트 1,365배럴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시추탐사를 계속해야 정확량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보통규모의 가스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석유개발공사는 가스매장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향후 3차원 물리탐사와 2~3개공의 평가시추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의 가스발견은 본 광구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92년 6월부터 탐사에 착수하여 94년 2월 비룡구조에서 석유 및 가스를 발견한 이래 두번째의 성과로서 석유 및 가스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4개의 유망구조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4개의 탐사정을 추가 시추할 계획으로 있어 이번 광구에서 가스 및 석유의 상업적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근래 11-2광구 인근지역에서 발견된 가스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상 파이프라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이번에 발견된 가스의 개발은 수년내에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효성중공업(주)**

**철도차량용 AC견인전동기 국산화  
관련부문 사업 확대 계획**

효성중공업은 최근 독일의 지멘스社와 AC견인전동기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 오던 철도차량용 AC견인전동기의 국산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효성중공업이 기술제휴를 체결한 AC견인전동기는 신철연시스템을 채택하여 대용화 및 소형화를 실현한 제품으로 첨단구동시스템인 VVVF 제어방식에 적합한 견인전동기이다.

이 제품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저소음 고효율로 에너지절약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철도차량 견인전동기는 직류전동기와 교류(AC)전동기로 구분되나, 최근 제어기술 및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VVVF제어시스템을 이용하는 AC

견인전동기를 채용한 철도차량이 일반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효성중공업은 그동안 지하철2호선에 직류견인전동기를 납품한 이래 꾸준히 관련기술을 축적해 왔으며, 이번 AC견인전동기 기술제휴를 통해 관련부문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효성중공업은 이미 대구지하철 1호선용으로 60여대분의 수주를 확보하고, 95년부터 납품을 개시할 예정이며, 97년도에는 내수부문에서 60억이상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아시아지역 환경방사능감시망 구축  
일본·중국등 10개국 연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올해 국제적수준의 원자력 규제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및 아시아지역의 환경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키로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우리나라 주변국의 原電건설 추진과 관련한 아시아 국가간의 방사능 방재협력체제를 위해 방사능 감시망 설치와 방재기술지원 전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중국·몽고등 10개국을 연결하는 아시아지역 감시망구축을 오는 10월 개최되는 「아시아지역 원자력안전협력 워크샵」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또 과거처와 온라인으로 서울·강릉·대구·광주 등 9개 지방측정소 및 2개 간이측정소, 각원전, 굴업도등을 모두 연결하는 방사능 방재기술지원 전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전산체제는 육군 방사능감시망과도 연결시켜 방사능 감시를 수행하고, 원전사고에 대비한 정보수집이나 분석시스템 개발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올해 이 사업이 완료되면 국민과 정부, 사업자가 신뢰하는 전문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고 국제간 협력으로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주)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 선언  
2천년까지 세계10위권 진입

삼성엔지니어링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200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 종합엔지니어링사로 진입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94년도 수주 8천억원, 매출 4천 8백억원의 외형을 오는 2001년에는 수주 3조원, 매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해외비중도 40%에서 7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삼성엔지니어링 安德基 사장은 지난 4월 15일 올림픽공원내 역도경기장에서 전임직원 및 가족과 협력업체 직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5주년 기념식을 갖고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3대지표를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우선 세계 10대 엔지니어링사로 진입키 위해 품질 및 신용과 가격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재개발과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 초일류 기업의 기본을 갖추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객만족 경영을 확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3년을 「품질 및 안전 우선 경영의 해」로 정하고 기본과 원칙지키기, 실천을 중시하는 경영풍토 조성, 견실 시공정책등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바람직한 기업문화 정착에도 주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사풍을 뿌리 내리는데 힘쓰기로 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이같은 3대지표를 토대로 에틸렌 맥주공장건설등 특정분야에 기술력을 집중, 월드베스트 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환경오염방지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보존활동 참여에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환경관리기업 선포식과 사회봉사단 발대식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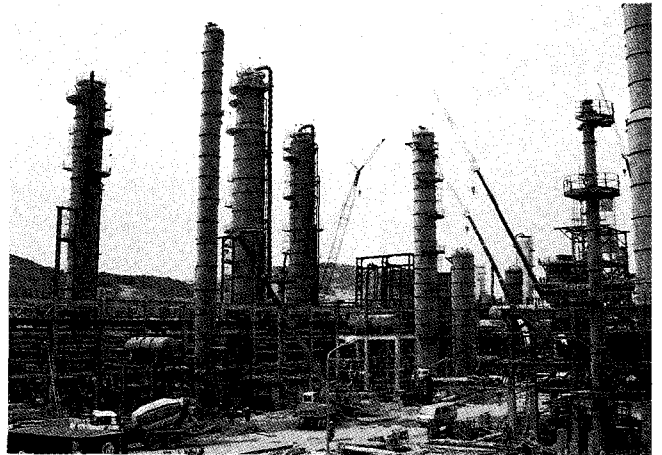
지난 70년 국영기업체인 코리아엔지니어링으로 시작한 삼성엔지니어링은 78년 삼성그룹이 중화학공업에 진출하면서 인수, 업무영역을 설계에서 구매 시공으로, 사업영역은 반도체, 자동화설비, 에너지환경으로 넓혀 나갔다.

91년에 社名을 지금의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변

경,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기 시작했다.

호 남 정 유 (주)

파라크실렌생산 97년 100만톤 계획  
단일공장 생산규모 세계최대



호남정유는 연산 65만톤을 목표로 현재 증설작업중인 PX(파라크실렌)공장을 1백만톤 생산체제로 추가 증설하는 대대적인 시설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PX는 TPA(테레프탈산·폴리에스터원료)의 원료로 올해들어 국내외적으로 파동양상을 빚고 있는 유화제품이다.

호남정유는 연산 30만톤 규모의 PX생산공장을 65만톤 규모로 바꾸는 1단계 증설작업이 끝나는 오는 7월께 바로 35만톤 규모를 추가 증설하는 2단계 시설투자에 착수할 계획이다.

2단계 시설투자를 통해 오는 97년 4월에는 모두 1백만톤 규모의 PX대량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연산 1백만톤의 생산규모는 단일공장의 PX생산량으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다.

현재 진행중인 1단계 공장증설의 투자금액은 1천 7백억원이며, 2단계 증설에는 2천 5백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호남정유와 유공등이 생산하고 있는 PX의 현재 국내 공급량은 연간 82만톤 정도로 국내 TPA업체

의 수요량(약 1백20만~1백30만톤)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에따라 삼성석유화학등 TPA회사들은 해외에서 부족분을 수입하는데 국제가격이 치솟고 있어 원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호유측에서는 유공의 생산량을 감안할때 오는 97년에는 PX 국내생산량이 모두 1백83만톤 정도에 달해 약 2백만톤으로 예측되는 국내수요량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제1회 국제핵융합 심포지움 개최**  
국제협력 연구기반 확립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본사 2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대덕 국제핵융합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토카막 연구를 주제로 전문화된 심포지움으로 국내 핵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핵융합연구의 현안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여 차세대 토카막 연구의 국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의 토카막연구는 80년대 초반이래 열악한 여건하에서 원자력연구소와 서울대에서 기초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원자력연구소는 95년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부분적으로 건설에 착수, KT-1을 이용한 기술고도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국내 핵융합연구의 국제화와 세계화의 시작으로 국제협력 연구의 기반확립과 차세대 토카막연구로 국제핵융합 연구의 실질적인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전연료(주)**

**'SUPER 2000'분임토의 개최**  
각 부문별 주제발표 토론

한국원전연료(주)는 지난 4월 26일 모문산 그린타워에서 신 원전연료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장과의 대화 및 'SUPER 2000'추진을 위한

분임토의를 실시하였다.

이창섭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하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밑거름"이라고 전제하고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회사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서 좋은 회사,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회사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기탄없이 발표하였으며, 발표된 건의사항은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한편 'SUPER 2000'분임토의에서는 한국원전연료의 세계화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각 부문별 주제 발표 및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전력기술(주)**

**영광 5·6호기 종합설계용역 계약**  
기술자립 재도약 계기 마련

한국전력기술(주)는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영광원자력 5·6호기(1000MWe급) 종합설계 용역을 1천9백85억5천만에 수주하여 계약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국내 원전사업에 있어서 주계약자로 선정된 이후 영광원자력 3·4호기를 통한 기술자립기반의 구축과 울진원자력 3·4호기를 통한 표준화과정을 거쳐 수행하는 것으로 선행호기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자립을 완료하고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내용은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 인허가 지원, 보조기기 구매, 주기계약 기술관리, 설계관리, 시공 및 시운전 기술등의 설계기술업무와 사업주 사업관리체계 개발업무, 사업주 기술지원 업무 및 한전직원 훈련업무등이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기술이 지난 94년 1월에 설계업무를 착수했으며, 호기별로는 5호기가 2001년 6월, 6호기가 2002년 6월에 각각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이번 사업수행을 통해 울진원자력 3·4호기의 국내 표준원전에 영광원자력 3·4호기의 건설 및 시운전 경험을 반영시킨 고품질의 원전설계 능력확보와 원전건설 공기단축 달성 그리고 안전성 및 경제성이 고도로 확보된 원전설계 경험보유에 따른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사업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